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들 창의적 문화생활 찾아 수도권으로

광주·전남 청년 '엑소더스'

<2> 교육·문화 인프라 차이

최근 청년 수도권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지역의 교육·문화적 인프라의 차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들 '엑소더스'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2030 청년들에게 트렌드는 빠르게 생성되고 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휴먼클라우드 플랫폼 '뉴워커'의 조사(2022년)에 따르면 성인 남녀 833명 중 60%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이주해 가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자영업자 윤주영(25)씨와 수도권 수제버거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김유근(26)씨는 트렌드의 생성과 변화가 수도권 이주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윤씨는 "문화적 요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생성되고 변화하며 발전한다"고 강조하며 "현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적 요소의 변화를 체감할 방법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대에 수도권으로 가서 다양한 경험을

공연·콘서트 등 지역과 큰 차이 도서관 접근성도 격차 뚜렷 활동 공간·콘텐츠 부족에 이주

하고 싶었다. 트렌드 면에서 서울과 지역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느낀다"며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 인지도 있는 식당과 함께 진행되는 밀키트 배송 서비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있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 기회의 차이도 수도권 선호의 이유가 됐다.

국토연구원 발표한 '시도별 공연 건수 및 매출액 현황(2021년)'에도 '문화생활 수도권 과밀' 현상이 보인다.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그 수치는 전체의 24%(5039개)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형배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에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연 총 4236회 중 86.3%(3656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2년 83.5%(922회), 2023년 84.7%(883회), 올해 8월 기준 89.6%(553회)로 서울 공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광주 공연은 2022년 0.5%(6회), 2023년 0.6%(6회), 올해 8월 기준 0.6%(4회) 수준이며

전남 공연은 2022년 1.1%(11회), 2023년 0.6%(6회), 올해 8월 기준 0.2%(1회)에 머물렀다.

대표 문화시설인 도서관의 접근성 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토연구원 '시도별 도서관 접근성(2020)' 자료에는 17개 지자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은 평균 도보 14분 거리에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보 33분)는 부산(도보 32분)에 이은 3위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전남(도보 100분)은 16위를 기록하며 강원(17위·122분)과 불과 2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호남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박채니(여·21)씨는 "공연이나 전시회·북콘서트 같은 문화생활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불편했던 적이 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밝힌 전남대학교 철학과 주경원(여·19)씨는 "수도권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콘서트장이 있지만, 비교적 콘서트가 적게 열리는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편들은 매년 부담되는 교통비를 내고 서울로 간다"고 말했다.

전남대 철학과에 재학 중인 김대권(25)씨는 "도시 내 활동 공간과 콘텐츠 부족이 광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방은 인구 규모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jinggi@kwangju.co.kr

“민주주의 맞당은 광주와 이스라엘 AI·문화·학술 등 교류하고 싶어요”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Rafael Harpaz)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28일 "이스라엘과 한국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며 "특히 광주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와 AI(인공지능), 문화, 학술, 민주주의 등으로 교류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부임 후 비교적 일찍 광주를 찾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광주를 방문하게 돼 행복하다. 광주시와 이스라엘 간 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왔다. 광주시와 이스라엘은 오래 전부터 좋은 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에 부임한 지 90여일 만에 광주에 오게 된 것은 광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한국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특히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사건이 이뤄진 중요한 도시로,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이유다.

-예향의 도시이자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광주에 대한 생각은.

▲취미가 역사 공부인 만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1980년 5·18이 일어났을 때 어렸지만 항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슬픔이 있다.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가 옛 전남도청 부지에 자리 잡은 것 자체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느낀다. 국립5·18민주

묘지 참배도 다녀왔다.

또 '예향 도시' 광주에 오니 이스라엘이 광주와 교류하고 관심을 나눌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ACC에 방문해 구본창 사진작가 전시회 등을 관람 갔게 됐다. 비엔날레부터 시작해 예향 도시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광주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 중 이스라엘관 파빌리온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광주가 정말 '예향'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나는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관을 보며 감명 깊었고 비엔날레가 광주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했다. 비엔날레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교류 행사야말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향후 광주와의 교류 계획은.

▲광주 방문 중 가장 시장을 만났다. 광주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AI 선도 국가 중 하나로, R&D(연구개발) 분야 투자 비중 1등 국가다. 광주시와는 AI, 문화·학술·과학기술 등 가까워지기 위한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ACC를 통한 문화 교류, 비엔날레에 이스라엘 참여, 광주과학기술원(GIST)과의 학술 교류 등을 구체화하고 싶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단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최근 후전에 합의했다.

▲미국이 도움을 많이 줘서 감사하고 한국 정부에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남쪽에선 하마스, 북쪽에선 헤즈볼라와 발생한 것으로, 현재 헤즈볼라와만 휴전에 합의한 상태다. 아직도 남쪽에서는 하마스 101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억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과 비난에 익숙하다. 이 세계 어느 국가도 이스라엘처럼 적극적으로 둘러싸여 공격 받는 나라는 없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다. 다만 목표가 민간인 공격은 아닌 만큼 모든 것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라파엘 하르파즈 대사는 1989년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주미국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공보관, 주필리핀 이스라엘 대사, 이스라엘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창업 페스티벌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에서 관람객이 고글을 쓰고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스타트업(Startup)'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스트씨큐리티, 테라웨이브 등 4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80여개의 부스에서 인공지능기술과 융합산업을 선보인다. /김진우 기자 jeans@kwangju.co.kr

윤 대통령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대폭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이며 미숙아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이고 있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kg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했다.

또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 의료센터를 중앙 및 권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유)」 (재택근무) 취업 연계 **훈련생 모집**

(접수 ~24.12.01(일) 까지)

1 모집 개요

- 사업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 훈련 및 취업직무

직무	주요업무	모집인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재택 사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노터링 업무 (주제별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Call 업무 (구매 근무경험자, 지원자, 재직자에 게 목격에 맞춰 응대 후 내용 기록) * 업무교육 후 적정 업무에 배치 	8명	- 09:30 ~ 14:00 (오전) 또는 13:00 ~ 17:30 (오후) (오전, 오후 중 선택가능) ~ 주 5일, 일 4시간 근무

* 모집인원 미달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무지(형태): 재택근무 * 고용방식: 면접전형 합격자는 맞춤형훈련 수료 후 채용(훈련 기간 중 최종 적격 심사)

4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 접수
▶
면접
▶
교육 훈련
▶
최종 평가
▶
입사

- 서류접수: 2024.11.06(수) ~ 2024.12.01(일) 20:00 (이메일 제출) * 방문접수는 2024.11.29(금)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2.02(월)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 또는 전화) 예정
- 면접일차 및 장소: 2024.12.04(수)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관련 자세한 사항 개별통보 예정(면접시간 개별통보)
- 맞춤형훈련 합격자 발표: 2024.12.05(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서류 검증 결과 탈락사유(허위 기재, 중방서류 미제출 등) 등 합격 시 합격을 취소할 * 합격인원 미달 시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훈련기간: 2024.12.09(월) ~ 2025.01.10(금), 5주 (2.5주간-광주디지털, 2.5주간-재택실습)
- 훈련장소: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및 재택
- 채용예정일자: 2025.01.13(일). * 합격자 발표, 면접일, 훈련기간, 채용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5 맞춤형훈련 기간 중 훈련생 지원

-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훈련비, 교재 등)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최대 월 334,000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함
- 식비(중식) 지원 * 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 훈련시간: 10:00~16:45 (2.5주 실무통화훈련) / 13:15~17:00 (2.5주 재택실습, 웹캠 및 헤드셋 제공)

6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소정양식), 복지카드 앞면 뒷면 사본(사진촬영 후 메일첨부 가능)
 - 지원서류 다운로드:
 - 방법1: 전화(062-448-1188) 또는 메일(jkim77@kead.or.kr)로 연락 주시면 지원서 양식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방법2: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내이비블로그(blog.naver.com/gwdigital) - 카테고리(훈련정보) 접속 후 다운로드
 - 방법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메인화면에서 맞춤형훈련 모집 배너(이미지순차적으로 나타남) 클릭하여 다운로드 (또는 공단 홈페이지 - 직업능력개발 - 디지털훈련센터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공지사항)
 - 방법4: https://www.worktogether.or.kr - 교육정보 - 교육훈련정보 접속 후 다운로드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jkim77@kead.or.kr) 또는 방문접수(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제출마감: 방문접수 2024.11.29(금) 18:00, 이메일 제출 2024.12.01(일) 20:00까지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 본문내용, 제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성명 표기 * 메일 제목 및 제출 파일명 예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지원서_홍길동 * 이메일 본문 내용이 없을 시 스팸처리 될 수 있음.

* 본 과정의 훈련생은 최종인사(취업확인) 확정일로부터 전까지 광주디지털훈련센터의 훈련생 신분입니다. 맞춤형훈련은 채용이 미확정된 훈련생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훈련기간 동안 학업성취도, 생활태도, 출석, 정제, 현장평가, 기업체 채용기준 미달 등 기타 사유에 따라 중도탈락되거나 또는 최종인사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중도탈락 및 최종인사 탈락 시 맞춤형훈련은 종료되며, 지원하신 회사에 입사가 불허됩니다. * 맞춤형훈련 선발 면접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사유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7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062-448-1188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68 KDB생명빌딩(당동) 19층(지하철 당동역 1번출구 400m)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지원상담 ☎ 062-448-1188

광주 서구 천변로 268, 19층(당동 KDB생명 빌딩, 구 금호생명 빌딩)